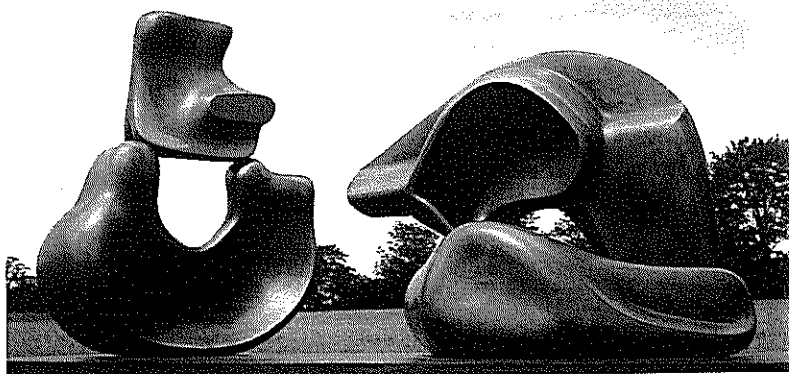


## 입체로 표현하기

- 이해 조소의 뜻과 재료,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표현 조소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 감상 다양한 조소 작품을 감상하고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

### 조소와 회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종이나 캔버스에 그리는 회화와 달리 조소는 재료를 깎거나 새기거나 빚어서 입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조소 작품을 만들 때에는 작품이 놓이는 장소나 주변 환경, 보이는 방향과 조명, 작품의 크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어(Moore, Henry/영국/1898~1986) 4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누워 있는 인물(청동/폭 4.02m/1972~73년 작) 자연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양감을 강조하여 표현한 인물의 모습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로댕(Rodin, François Auguste René/프랑스/1840~1917) 아담(청동/76×77×196cm/1881년 작) 땅을 가라키고 있는 손은 아담이 지상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청동으로 제작하였다.

#### Ⅰ 깎거나 붙이는 표현

조소는 '조각'과 '소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조각은 나무나 돌, 석고 등 단단한 재료를 깎으면서 형태를 만드는 기법이다. 수정이 어려우므로 계획적으로 작업해야 한다.

소조는 찰흙이나 점토, 석고 등의 무른 재료를 붙여 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제작이 수월하고 수정이 쉽다. 찰흙으로 만든 작품은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려우므로 테라코타로 만들거나 석고, 청동 등으로 형태를 떠서 보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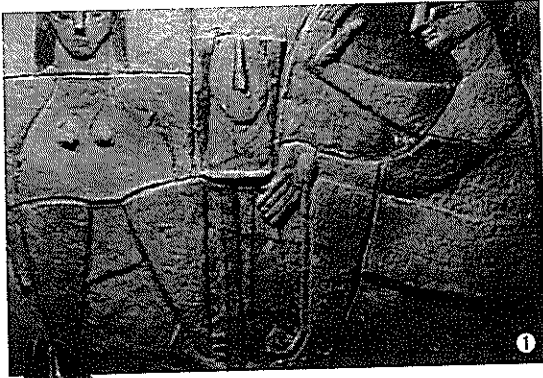
#### 작가와의 만남

##### 로댕

근대 조각의 시조로 불리는 로댕은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작품 〈청동 시대〉를 통하여 사실적 표현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건축물의 장식에 지나지 않았던 조각의 정신적인 면도 강조하여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조소의 표현 방법은 환조와 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환조는 공간 속에서 완전한 입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 부조는 평평한 판 위에 표현하는 것으로, 한 방향에서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배경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회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인체를 표현하는 조소도  
표현하는 부위나 자세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57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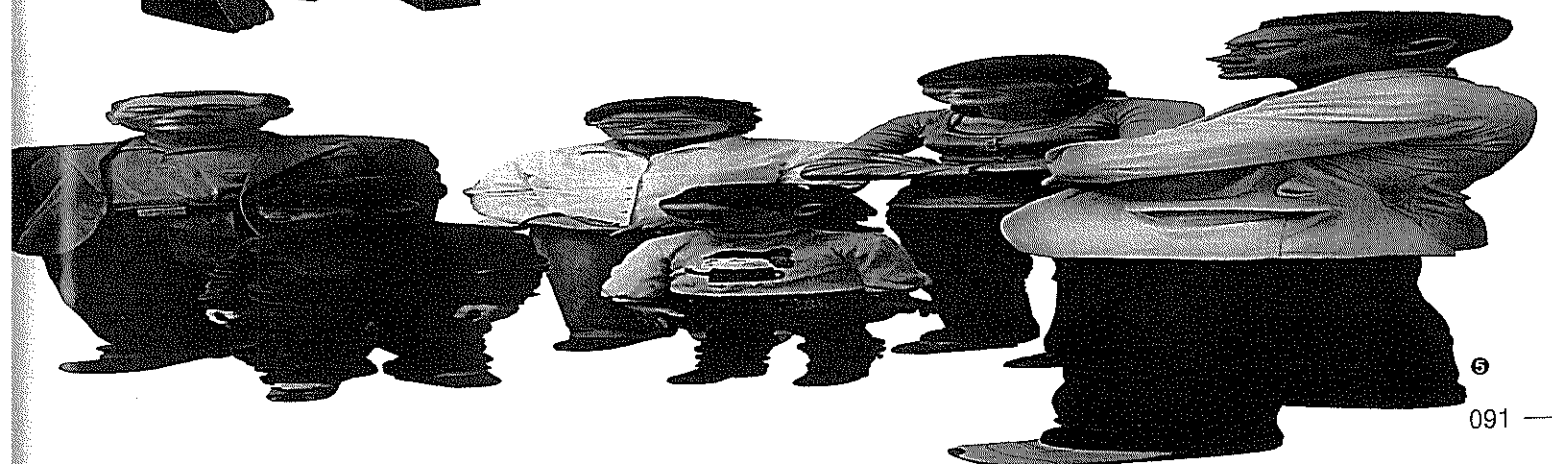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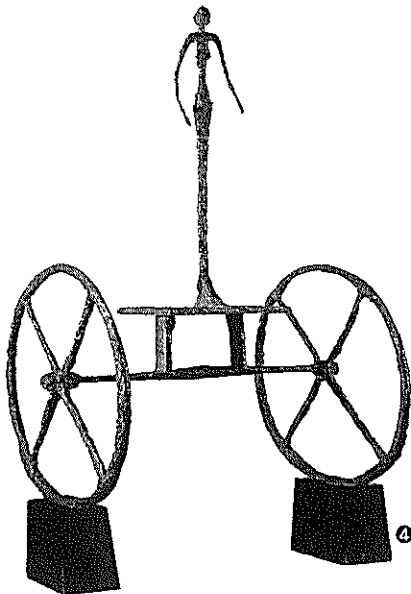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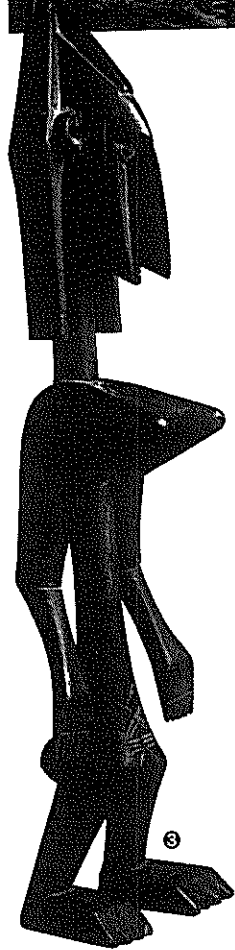
① 권진규(한국/1922~1973) 화가와 모델 (테라코타에 채색/70×100cm/1965년 작) 부조 형식의 테라코타로, 대담한 인물 표현이 특징이다.

② 강태성(한국/1927~) 토르소(오석/15×26×88cm/1985년 작) 인체에서 몸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토르소 작품으로, 인체를 단순화하고 석재 표면에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표현하였다.

③ 작자 미상(아프리카 말리) 여인 형상(나무/높이 59.5cm/연대 미상) 나무로 인체를 단순화하고 강조하여 나타냄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준다.

④ 자코메티(Giacometti, Alberto/스위스/1901~1966) 전차(청동/62×70×167cm/1950년 작)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단순화하여 인체의 형태를 가느다랗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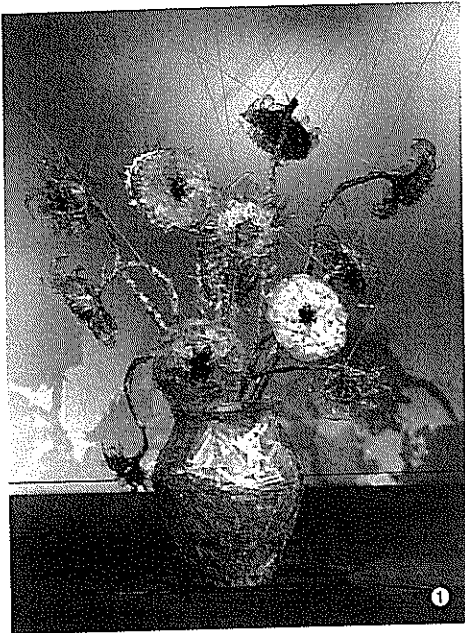
⑤ 이환권(한국/1974~) 장독대(합성수지/높이 각 110cm, 105cm, 115cm, 115cm, 76cm, 70cm/2008년 작) 형태를 왜곡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마치 사물을 특수한 렌즈로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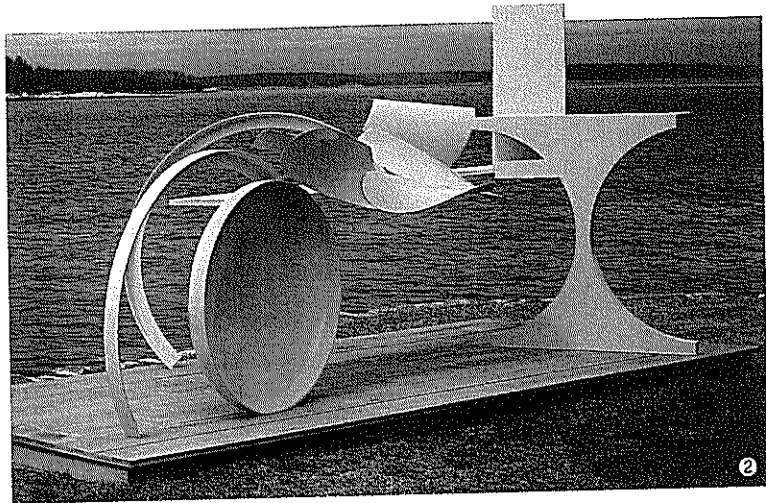
⑥

## I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한 입체 표현

현대에는 여러 가지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입체 표현의 영역이 넓어졌다. 철사, 철판, 동판과 같은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대상을 변형하거나 추상으로 표현하는 등의 새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선재, 면재, 양재 등 재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고, 변화, 통일, 균형, 동세 등의 조형 원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여 새롭게 입체 형상을 제작할 수 있다.



❶ 홍창호(한국/1961~) 해바라기(유리/170×150×240cm/2001년 작) 유리를 재료로 하여 고희의 작품을 재현하였다.



❷ 카로(Caro, Anthony/영국/1924~) 태양 축제(강철에 채색/181.5×416.5×218.5cm/1969~1970년 작) 직선적인 면과 곡선적인 면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❸ 지용호(한국/1979~) 뮤턴트 4(페타이어/2006년 작) 페타이어와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동물의 근육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궁금이

모빌(mobile)과 스테빌(stabile)은 무엇일까?

모빌 (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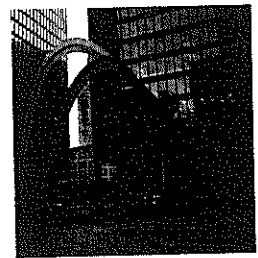
콜더가 창안한 움직이는 추상 조소를 말한다. 선재, 면재를 이용하여 만든 물체를 중심을 잡아 매달고 공간 속에 놓으면 바람이나 공기의 진동으로 스스로 움직인다.

콜더(Calder, Alexander/미국/1898~1976) 바닷가재 집게와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철판, 철사/높이 276.7cm/1939년 작)

스테빌 (stabile)

'정지된 조소'란 뜻으로, 모빌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금속판을 휘거나 접합시켜 만든 추상 조소로, 규모가 큰 작품이 많아 옥외에 장식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콜더(Calder, Alexander/미국/1898~1976) 플라밍고(철판에 채색/높이 16.15m/1974년 작)



활동하기 전에

찰흙으로 만든 작품은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 찰흙 소조 작품의 석고형 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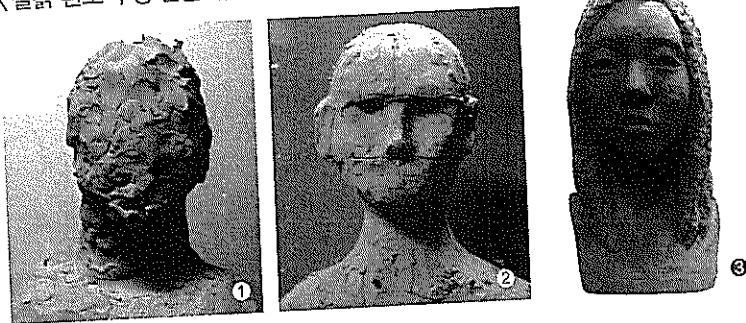
찰흙으로 만든 작품은 마르면 갈라지므로 오래 보존

하기 위해서는 석고형으로 뜨는 것이 좋다. 석고 액의 농도와 두께 등을 손으로 느끼면서 석고형을 직접 만들어 보자.

**준비물** 찰흙, 석고 가루, 나무망치, 쪼갬볼, 고무 그릇, 붓, 비누

**활동 과정**

〈찰흙 환조 두상 만들기〉



- ① 큰 덩어리로 양감을 만든다.
- ② 스케치 선을 긋고 얼굴의 주요 부분을 표현한다.
- ③ 얼굴의 특징을 파악하여 세부 적으로 묘사한다.

〈찰흙 소조 작품의 석고형 뜨기〉



- ① 찰흙 소조 작품에 쪼갬볼을 꽂는다.
- ② 석고 겹틀을 만든다.
- ③ 겹틀을 떼어내고 찰흙을 제거한다.
- ④ 석고 틀 안쪽에 비눗물을 바른대(석고의 겹틀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과정).
- ⑤ 석고 가루로 석고 액을 만들고 석고 틀 안에 붓는다.
- ⑥ 석고 액이 굳으면 석고 겹틀을 제거한다.
- ⑦ 세밀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 완성한다.



류하경(학생 작품) 친구의 모습(석고/23×28×45cm)



체크체크 자기 점검



- 석고형 뜨기 과정을 잘 이해하였는가?
- 재료와 용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는가?